

서흥 김씨에 대한 정려 추진과 죽음의 해석* - 『종용록』을 중심으로 -

서 경 희**

1. 서론
2. 『종용록』의 체제와 성립
- 3.烈的 증명과 죽음의 차별화
4. 죽음의 해석 정치
5.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종용록』을 중심으로 20세기 초 서흥 김씨의 죽음이 당시 어떤 사건으로 자리매김 되는지 추이를 따라가면서 공적 포상을 받기 위한 전략과 도덕적 의미화의 방향성을 짚어나갔다.

『종용록』에 실린 글들은 당시 정려 제도의 폐단으로 인해 열행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부인의 죽음을 진정한 열행으로 규정하고 믿기 어려운 일을 공식적이고 믿을 만하며 특별한 일로 만들어갔다. 이러한 증명과 해석 과정에서 김부인의 말과 행동, 몸의 증거를 낱알이 묘사하여 사라져간다고 여겼던 열행이 여전히 실재한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그리고 김부인은 현실적 위기에 맞설 도덕성의 우위를 드러내고 리에 기반한 질서와 위계를 발현하는 존재로 의미화되었다.

『종용록』에서는 김부인이 경전과 사서에 오를 만하다는 평가로 ‘보상’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 수혜는 포상과 찬술을 주도하고 참여한 외부의 몫이었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부교수(whowhome@hs.ac.kr)

다. 김부인의 삶에 대한 해부와 편집, 죽음에 대한 증명과 기림을 통해 믿기 어려운 일을 사실로,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종용록』에서 추구한 보수적 이념의 복원이 그만큼 기대하기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주요어: 종용록, 서흥 김씨, 해석, 열녀, 유교 윤리

1. 서론

『종용록』은 심재덕(沈載德)과 혼인한 서흥 김씨(瑞興金氏 이후 김부인)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들을 묶은 책이다. 혼인한 지 6년만에 심재덕이 세상을 떠나고 3개월 3일만에 김부인이 사망한 뒤, 그가 남긴 유한서, 벽상서 등 여러 편의 글과 친족, 지역민, 여러 유생들이 연명하여 나라에 정려(旌閭)의 포상을 요구하는 글, 그리고 김부인의 사적을 기록하고 평가한 다양한 문장들을 묶어서 1909년에 심재덕의 당숙인 심학환(沈鶴煥)이 합천에서 목판본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20세기 초 김부인의 죽음에 대한 당사자의 언술, 주변인의 찬술, 국가 시책을 위한 공적 진술을 모두 담고 있으며, 김부인의 죽음을 해석하는 여러 입장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 모아놓은 흔치 않은 자료이다.

이 책은 김부인의 유서를 중심으로 처음 학계에 소개되었다. 초기 연구에서는 자료의 전체적인 체제를 간단히 개관하고 김부인의 유서와 죽음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갑오경장 이후 제도적으로 여성에 대한 봉건적 제약이 사라져가던 시기에 김부인의 순절(殉節)은 봉건 윤리가 여성사회 저류에 깔려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개화의 물결 속에서 자신에게 엄격했던 김부인이 곧은 의지를 실천하여 각계의 칭송을 받은 것이라 했다.¹⁾ 이후 『종용록』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찬술의 기록 일부에서 김부인의 생애를 재구하고 유한서를 통해 김부인의 내면세계에 다가

1) 강재철, 「김부인유서에 대하여」, 『한국학보』 43, 일지사, 1986, 232~234쪽.

가고자 했다. 유한서 등 유서에서 김부인 자신이 토로한 회한, 슬픔, 고통 등을 볼 수 있는데 이 기록들 또한 사후에 누군가에게 읽힐 글이기 때문에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찬술시문(讚述詩文)은 김부인이 김굉필(金宏弼)의 소학가법(小學家法)을 익혔다는 점, 그가 도구 없이 죽음이 이른 것, 김부인의 열행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실제 김부인의 인간적 감정을 외면하고 또 다른 김씨 부인, 즉 '완전한 열녀'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²⁾ 『종용록』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김부인의 유한서가 여성 유서 일반의 의미를 탐색하는 자리에서 함께 검토되었다.³⁾

『종용록』에 대한 연구는 더 진척되어야 한다. 기존 논의는 김부인의 유서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었고 그 외 수록된 기록들은 김부인에 대한 정보를 구하거나 유서의 성격을 파악하는 대조군으로 활용되면서 『종용록』의 의미가 적극적으로 해석되지 못했다.

20세기 초에 김부인의 죽음을 기리고 의미화하기 위한 지친과 유생들의 움직임은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종용록』은 김부인의 죽음에 대한 당사자의 발화뿐 아니라 지친, 지역민과 유생들의 해석과 평가를 중첩한 해설서가 가깝다. 따라서 김부인의 발화와 죽음이 당시 정려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조명되었는지, 문중과 유생들의 참여로 어떻게 맥락화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진행되어야 『종용록』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종용록』을 가로지르는 김부인 죽음에 대한 해석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0세기 초 한 젊은 여성의 죽음이 개인적 문제에 머물지 않고 그가 살던 시대, 지역, 지친과 사회 속에서 어떤 사건으로 자리매

2) 황재문, 「『종용록』에 나타난 열녀 인식」, 『규장각』 22, 규장각한국학연구소, 1999, 155~172쪽.

3) 김정경, 「조선 후기 열녀의 순절의 의미화 방식 연구-재녕 이씨, 남원 윤씨, 서녕 유씨, 서흥 김씨 유서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53, 국제어문학회, 2011, 9~35쪽; 이홍식, 「조선시대 열녀전(列女傳)과 여성 유서(遺書)에 투영된 욕망의 간극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화』 64,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163~185쪽; 「조선후기 사대부 여성의 유서(遺書) 창작 양상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4, 95~123쪽; 「조선시대 여성 유서(遺書)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의미 탐색-남성 유서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0, 79~110쪽.

김하게 되는지 추이를 따라가면서 공적 포상을 받기 위한 전략과 도덕적 의미화의 방향성을 짚어나가도록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종용록』의 함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2. 『종용록』의 체제와 성립

『종용록』은 서흥 김씨, 즉 한원당 김굉필의 후손이며 김희연의 딸인 김부인에 대한 책이다. 그는 17세에 당시 13세였던 청송 심씨 재덕과 혼인하였는데, 재덕이 혼인을 하고 몇 달만에 병들어 6년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김부인은 재덕의 장례를 치르고 그가 죽은 날로부터 3개월 3일 뒤 같은 시간에 독을 마시거나 목을 매는 일 없이 자신의 방에 누운 채 자연스럽게 숨을 거두었다. 김부인은 죽음을 앞둔 심정을 유한서과 고결서, 벽상서 등 몇 편의 글에 남겼다. 김부인 사후 그의 시가와 지역민, 유생들이 정려를 청원해 같은 해 나라로부터 정려의 명을 받게 된다.

김부인의 시당숙인 심학환은 김부인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들을 모아서 『종용록』을 엮은 뒤 책의 맨 뒤에 붙인 후기에서 이 책을 간행하게 된 상황을 간단히 서술했다.

내가 차례를 정해 책을 만들어 노백헌과 여러 어른들에게 살펴보시도록 하고 친척인 상복에게 주어 깨끗하게 한 본을 베끼게 하니 멀고 가까운 곳의 문인들이 모두 칭찬하며, “이 책은 마땅히 간행하여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지금 윤리가 어지러워지고 종묘사직이 땅에 떨어졌는데 어찌 더불어 도모하여 박괘의 마지막 하나인 양(세상에 하나 남은 예)을 붙들지 않겠는가? 드디어 후산옹이 남긴 글을 엮는 작업의 끝에 종당과 지친들이 즐겨 의로운 뜻을 내고 판단하는 자 또한 청렴하고 곧아서 책을 간행하는 것을 도우니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같음에 감동하였다. 함께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자는 재종형 종환이다.⁴⁾

4) 『종용록』, “余敘次成卷, 就勘於老柏軒及茶上長德, 因授族人相福, 淨寫一本, 遠近章甫并皆嘖

심학환은 김부인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기록들을 세 부류로 나눠 각 권으로 묶었다. 먼저 권1에는 김부인이 남긴 글 4편과 한문 번역문 4편 및 번역자의 후기, 권2에는 김부인에게 정려를 포상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장(門狀)〉, 〈동장(洞狀)〉, 〈향유장(鄉儒狀)〉, 〈도유장(道儒狀)〉과 각 문서마다 쓴 데김(題音) 및 보고서, 훈령(訓令) 등, 권3에는 제문(祭文), 묘지명(墓誌銘), 정려각상량문(旌閭閣上梁文), 전(傳), 정려기(旌閭記) 등 각종 찬술문 16편이 실려있다. 그리고 앞뒤에 서문과 후기를 붙인 뒤 전체를 한 책으로 묶었다. 84면(42장) 분량이다.

이렇게 차례를 정하고 책을 만들어 정재규(鄭載圭) 등 여러 문인들에게 보이고 먼저 필사본을 만들었는데, 많은 문인들로부터 이 기록을 출간해서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다. 심학환은 세상의 윤리 기강이 무너진 때에 마지막 보루라 여기고 김부인과 같은 해 세상을 떠난 허유(許愈)의 문집 작업 끝에 이 책도 출간하였다. 심학환은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노백헌 등 어른들의 교감(校勘)을 거쳤고, 이 글들을 필사해서 초본을 만든 심상복과 책의 출간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심종환의 노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러 문인들의 권유와 집안과 지인들의 도움이 있었고 판각을 맡은 사람까지 한 뜻이었다는 것을 기록해 두었다. 심학환이 이 책을 통해 알리려 한 김부인 죽음의 의미는 당시 청송 심씨 집안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책의 편찬에 참여할 동기로 충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집안의 인사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종용록』이 편찬되었다는 서술은 이 책을 엮는 목적이 단지 청송 심씨가 이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한 집안의 이익보다 공적 필요에 부합하는 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종용록』에는 김부인 당사자 외에 정려 추진 과정에서 문서를 작성한 관리와 저자를 밝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도 20명 이상의 문인들이

嘖曰, 此錄當鈐布斯世. 今綱紀數素, 宗祔塌地, 盍與亟圖之以扶剝上之陽. 肆於后山翁遺文潔梨之餘, 宗黨與知舊, 樂爲出義, 制氏亦廉直扶成, 竊有感於所秉者同, 而於此事與之終始者, 再兄鍾煥也.” 『종용록』에는 이 글이 제목 없이 맨 뒤에 실려있다. 심학환의 문집 『초산집(蕉山集)』에는 같은 글에 〈書從侄婦金孺人從容錄後〉라는 제목이 붙어있어 이후에는 편의상 문집의 글 제목을 사용한다.

글을 실었다. 또 700명 가까운 친족, 지역 문인 등이 연명해서 김부인에게 정려를 내려주기를 요청한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김부인에 대한 정려 요청과 『종용록』의 편찬은 김부인의 사적과 죽음의 의미를 많은 인사들과 지역 사회에 알리는 활동이 되었다.

『종용록』에 실린 글과 저자, 체제는 다음과 같다.⁵⁾

권	제목	표기	저자(역자)	비고(연명)
序	烈婦金氏行錄序	한문	金道和	
	從容錄		鄭載圭	
一	김부인 유혼서	한글	김부인	
	벽상서			
	벽상서			
	아바님 전상사리			
	金夫人遺恨書	한문	(宋鎬完)	
	壁上書			
	壁上書			
	親堂告訣書			
	無題		宋鎬完	飜文 후기
	門狀		沈相吉	(沈相台 沈相祚 沈相岳 沈相同 沈相麟 沈載翰 沈德基 等 十餘人)
	題音		郡守 金永雲	
	洞狀		미상	(朴秉和 柳大潤 尹炳玉 等 三十二人)
	題音		金永雲	
二	陝川郡守署理 三嘉郡守 金永雲 報告		金永雲	
	題音		觀察使 閔衡植	
	鄉儒狀		미상	(尹復達 姜斗變 周鎬錫 等 四十人)
	題音		閔衡植	
	道儒狀		鄭載圭	(李根玉 金載永 張升澤 鄭載圭 李承熙 等 五百八十)

5) 목판본으로 간행된 『종용록』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장서각, 규장각 등 다수의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동일 판본으로 인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쇄 상태(혹은 보존상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권	제목	표기	저자(역자)	비고(연명)
	題音		觀察使 成岐運	
	慶尙南道 觀察使 成岐運 報告		成岐運	
	題音		掌禮院卿 朴定陽	
	掌禮院立案			
	掌禮院 卿 朴定陽 訓令 慶尙南道 觀察使 成岐運			
	觀察使 成岐運 訓令 陝川郡守 李長植			
三	祭墓文		金熙淮	
	旌閭閣開基時告由文		沈龜煥	
	烈婦金氏旌閭閣上梁文		張升澤	
	烈婦金氏旌閭記		郭鍾錫	
	烈婦金氏傳		宋鎬彦	
	烈婦金氏墓碣銘 并序		李承熙	
	書烈婦金氏遺恨書後		許愈	
	書烈婦金氏事實錄後		金鎮祐	
	書金夫人殉節錄後		張錫英	
	書金氏殉節錄後		河龍濟	
	書烈婦瑞興金氏從容錄後		鄭冕圭	
	書烈婦金氏從容錄後		宋鎬坤	
	謹書從容錄後		金載植	
	旌閭詞		沈鍾煥	
	題從容錄後 二首		沈斗煥	
	讀從容錄有感 二首		沈相福	
	無題		沈鶴煥	『蕉山集』에 실린 〈書從侄婦金孺人從容錄後〉와 같은 글

『중용록』의 각 권에 실린 글은 성격도 다르지만, 작성된 시기도 구분된다. 권1에 실린 김부인의 글은 1904년 2월 6일 사망 전에 쓴 것이다. 이후 『중용록』이 묶이는 과정에서 심학환의 부탁으로 송호완이 김부인이 남긴 글들을 한역하여 함께 실었다. 권2의 정려를 청하는 문서들은 같은 해 2월 6일 이후부터 정려가 내린 10월까지 작성된 것이다.⁶⁾ 권3에 실린 찬술문의 경우, 작성 연도

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장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려를 세울 당시 필요했던 <정려각개기시고유문>과 <열부김씨정려기>가 각각 심구환과 곽종석에 의해 1904년, 1905년에 작성되었고, 김부인의 부친 김희연이 1906년에 <제묘문>을 썼다. 1908년에 장석영, 하용제가 『종용록』의 기록을 읽고 후기를 작성하였으며 김도화가 서문을 썼다. 그리고 이 책이 간행된 1909년에 정면규가 <서열부서흥김씨종용록후>를 짓고 편찬자 심학환이 <서종질부김유인종용록후>를 썼다. 대체로 김부인 생전과 사후, 사후에 작성된 글 가운데서도 정려가 내리기 전과 후로 글 작성 시기가 나뉜다. 따라서 권차 별로 작성 시기, 글의 성격에 따라 김부인의 죽음에 접근하는 시각이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진다.

또 『종용록』에는 김부인이 죽음을 앞두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작성한 글 외에 그를 직간접적으로 아는, 혹은 알게 된 인사들의 글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권2와 권3에는 주로 김부인이나 심학환과 인맥과 지연, 학맥으로 연결된 인사들의 글이 들어있다. 김부인의 시숙인 심구환, 시고모부 송호언, 당숙인 심학환, 재종조 심상길과 재종숙 심종환 등이 군수에게 올리는 <문장>이나 찬술문 등을 썼고, 부친인 김희연과 김부인 집안의 인척인 이승희, 시고모부 송호언의 형제인 송호곤, 송호완 등이 모두 참여했다. 또 <도유장>이나 찬술문, 서문과 후기를 작성한 인사들은 당시 지역의 석학들이다. 김도화, 정면규, 정재규, 허유, 곽종석, 장승택, 이승희, 김진호, 장석영 등이 글을 썼는데, 이들은 단지 당대 저명한 인물들이어서만이 아니라 심학환 등 청송 심씨 자체들의 스승이거나 학맥으로 연결된 인물들이었다. 심학환은 김부인의 시부 심기환과 심두환 등과 함께 허유에게 배웠고 그의 사위이기도 하며, 심재덕의 고모부 송호언과 송호곤, 송호완 형제 등도 허유와 정재규, 그리고 이진상

6) 김부인이 사망한 뒤 나라의 포상을 받기까지 정황에 대해서는 이승희가 <열부김씨묘지명병서>에서 짧게 언급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김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관청에 고하니 8월에 본부 관찰사 성기운이 보고하여 10월에 장예원 경 박정양이 임금께 아뢰었다. 아뢴 대로 하라는 임금의 뜻을 받들어 본군에 명하여 재목을 갖추어 일을 지휘하도록 해서 군의 남쪽 대목면 이계리 마을 어귀에 정려문을 세우고 호세를 면제해 주었다.(遠近聞者皆下淚奔走告郡府, 八月本府觀察使成歧運以聞, 十月掌禮院卿朴定陽上奏. 奉上旨依奏命本郡庀材董役, 綽楔于郡南大目面伊溪里間, 復其戶.)”

의 제자 윤주하(尹胄夏)에게 배웠다. 청송 심씨가 주변 자제들은 이진상의 아들 이승희와 제자 곽종석 등 한주학파의 여러 인사들과 친분을 쌓고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 이처럼 문인들은 김부인이나 청송 심씨가와 친족이라는 사적 관계에서 혹은 공적 지위에 따라, 또는 그물망처럼 얽힌 인맥과 학맥에 기댄 청탁에 부응하기 위해 『종용록』에 글을 실었다. 이 책은 김씨 시가인 청송 심씨 집안의 인사들뿐 아니라 주변의 관계도와 동향을 보여주는 인물 지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계망의 좌표 위에서 김부인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을 포착하며 어떻게 의미화하는지 드러난다. 따라서 김부인 죽음에 대한 포상 관련 공문과 찬술이 실린 『종용록』의 권2와 권3을 중심으로 그의 행적에 대한 해석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3. 췌의 증명과 죽음의 차별화

고종 5년(1868)에서 8년(1871)까지 영의정 김병학은 정려를 내리고 복호(復戶)를 시행할 때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국가의 은전이 남발되는 문제에 대해 거듭 건의했다.⁷⁾ 1898년 김상집에 의해 편찬된 『본조여사』의 열녀편에는 실제 격쟁(擊鐙)을 통해 정려를 받은 사례가 실려있다. 병든 남편에게 넓적다리 살을 잘라 먹인 전주 이씨가 고종 24년(1887) 왕이 동릉으로 행차할 때 아들의 격쟁으로 생전에 정려를 받았다고 했다. 유인석이 쓴 〈열부유인이씨전〉에는 1901년 열부 이씨가 남편을 따라 죽자 그의 시가에서 나라에 정려를 내려줄 것을 청했는데, 예부에서 돈을 요구했던 일을 비판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⁸⁾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정려 제도의 공신력이나 포상 과정에 대한 우려가 이 시기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2년이 지난 뒤 1906년에 봉상사 부제조 이필화가 고종에게 올린 상소에서는 제도의 폐단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7) 박주, 「19세기 후반기의 旌表政策」, 『연구논문집』 52,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1996, 15~40쪽.

8) 柳麟錫, 『穀菴集』 卷50, 〈烈婦孺人李氏傳〉.

그 하나는, 장례원(掌禮院)에서 정문(旌門)을 세워 포상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례적으로 돈을 받는 일입니다. 충신, 효자, 열녀에 대해 정려(旌閭)하는 것은 곧 기강과 인륜을 세우고 풍속과 교화를 높이기 위한 국가의 큰 권한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또한 정밀하게 택하고 상세하게 안 연후에야 작설(綽楔)의 은전을 시행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법인데, 더구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자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그 사적의 허실은 따지지 않고 오직 관례로 납부하는 돈 800원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고 허락하니, 행적은 헛된 것이 되고 관례로 납부하는 돈이 사실을 만들어 냅니다. 설령 충신, 효자, 열녀의 실질적인 행적이 있더라도 반드시 천고(千古)에 묻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게 되고 마니, 이 어찌 묘당(廟堂)에서 법을 세운 본뜻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속히 장례원의 벼슬아치들을 엄하게 신칙하여 그 이른바 '정려(旌閭)와 관련하여 관례적으로 납부하는 돈'을 영원히 혁파하도록 하며, 모든 은전(恩典)과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널리 탐문하고 상세히 안 연후에 주문(奏聞)하여 표창을 청하게 하소서. 만일 사정(私情)에 이끌려 뇌물을 받아먹고 없는 일을 속여서 사실로 만드는 경우가 있으면 해당 정장(呈狀)한 사람과 도신을 모두 논죄(論罪)함으로써 풍속의 교화를 장려하여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⁹⁾

상소에 따르면, 사실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관례로 납부하는 800원이 있으면 관리들이 사정에 이끌려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문서를 꾸며 정려를 내리는 폐단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라의 포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제 정문을 받을 행적이 있어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되니 포상을 하는 본뜻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꼬집는다. 나라의 기강과 풍속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도신(道臣)들이 사실을 널리 탐문하여 상세히 안 연후에 조정에 아뢰어 표창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시대에는 정려 정책이 엄격하게 시행되어 왔으나 현종대 이후 고위 관료의 청이나 국왕의 명이 있을 때만 실록에 기재할 정도로 정려를 내리는 수가 많아졌다. 고종 대에 정려 상납금 제도의 시행으로 그 업적과 상관없이

9) 『승정원일기』 고종 43년 병오(1906) 3월 24일 기사.

국가 재정의 보충 수단으로 전락하여 조선 말기에는 정려가 남발되었다. 그러자 조선 말기 신분제의 붕괴로 위기의식을 느낀 기존 양반들이 정려 제도를 가문을 과시하고 현양하는 기회와 수단으로 삼았다. 당시 유명 인사가 정려거나 비문을 작성하면 그 위세와 후광이 더해진다고 여겨서 고위 관직을 역임한 인사나 학식 있는 문인이 글을 찬술하도록 하는 풍조가 일제 강점기까지 이어졌다.¹⁰⁾ 19세기 포양(褒揚)을 위한 정소(呈訴) 활동에 더 많은 인원의 연명이 요구되고 사림 중심의 향촌 공론이 점차 확대되어 가던 경향과 맞물린 현상이었다.¹¹⁾

이처럼 정려 제도가 점차 변질되고 포상을 받는 당사자 행적의 사실 여부가 의심받기도 했지만 정려와 복호 등을 받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었다. 19세기 한 집안에서 여러 대에 걸쳐 효자, 열녀를 인정받고 시호와 조세, 복역의 면제를 청하는 글을 많게는 백여 명의 연명으로 거듭 상소하기도 했고, 집안에서 60년에 걸쳐 효자열녀 정문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한 일도 확인할 수 있다. 정려의 청원이 집안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부역과 조세를 면제받아 집안의 특권과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¹²⁾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려의 포상을 청하더라도 정려 제도 시행에 대한 당시의 우려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정려의 포상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더라도 정려의 절차와 당사자의 행적에 대한 의구심에서 자유로워야 그 포상의 의미가 집안의 위상을 지지하게 되는 것은 당연했다. 청송 심씨가를 중심으로 김부인의 정려를 추진하던 일도 이러한 배경 위에서 이루어졌다.

『중용록』의 권2에는 김부인의 정려를 청원하는 글이 총 4편 실려있고 이 청원과 관련된 관리들의 글이 중간중간 삽입되어 있다. 〈문장〉과 〈동장〉을

10) 이희환, 「조선 말기의 정려(旌閭)와 가문 숭상의 풍조」, 『朝鮮時代史學報』 17, 조선시대사학회, 2001, 141~170쪽.

11) 김경숙,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聯名呈訴활동과 公論형성-安東 周村 眞城李氏家 사례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109, 한국사학회, 2013, 233~266쪽.

12) 김혁, 「19세기 김채상 집안의 효자정려 취득과정」, 『장서각』 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97~139쪽; 박주, 『조선시대 읍지와 유교문화』, 국학자료원, 2016, 478~506쪽 참조.

군수(郡守) 김영운(金永雲)에게 올리자 김영운은 문서를 접수하고 관찰사 민형식(閔衡植)에게 보고하였으며, 〈향유장〉과 〈도유장〉을 각각 관찰사 민형식과 성기운(成岐運)에게 올리자 이들도 문서 접수 후에 성기운이 장례원(掌禮院)에 보고했다. 장례원에서 김부인의 일에 대해 입안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자, 임금이 허락했다. 이에 장례원 경 박정양이 관찰사 성기운에게 정령을 세우기 위한 훈령을 내리고, 성기운은 군수 이장식에게 다시 훈령을 내렸다. 이처럼 이 책은 정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문서가 누구에게 접수되었고 관청에서 상부 기관에 어떻게 보고하여 어떤 절차에 따라 정령의 명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종용록』 권2에 김부인이 정령을 받게 된 공적 문서를 순차적으로 엮어서 많은 문인들이 연명하여 청원하고 그 청원의 타당성을 인정한 관리와 조정의 결정에 의해 정식 절차에 따라 포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김부인의 일을 포상받기 위해 여러 단위에서 관에 올린 문장들을 통해 김부인의 죽음을 해석하는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김부인의 시재종조인 심상갈이 작성한 〈문장〉과 지역의 학자이자 심학환 등 편저자들의 스승 격인 정재규가 쓴 〈도유장〉에서는 당시 여성 개인의 죽음을 공적으로 의미화하는 데 무엇이 필요했는지 보다 자세하게 보여준다.

여러 문인들이 김부인의 정령을 청원하는 글들은 모두 김부인이 남편을 따라 죽기까지의 일을 서술하고 이 죽음이 왜 특별한지 강조한다. 가족들에게 목격된 김부인 생전의 행적들 가운데 그의 죽음이 열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일들이 편집되어 집안이나 마을, 향촌과 도 단위에서 올린 문서에 실렸다. 이 일화들은 김부인 죽음의 의미를 증명하는 퍼즐 조각이 되었다.

김부인이 남편의 병수발을 정성껏 들고 시부모를 효성스럽게 모셨다는 기본적인 부덕에 대한 기술 외에 김부인만의 특별한 행적을 서술하는데 그 핵심은 김부인이 칼이나 독을 쓰는 등 죽음에 이르는 물리적 방법을 쓰지 않고 자신이 기약한 날짜에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정령을 받을 만한 열행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했다. 김부인이 주변을 모두 정리하고 스스로 계산한 날짜와 시

간에 자는 듯이 누워서 죽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며, 그가 남편을 따라 죽은 것인지 다른 이유로 죽은 것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2에 실린 글에서는 김부인의 죽음이 실제 일어난 일이고 남편을 따라 대의(大義)를 실천한 것이라는 증거를 조목조목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먼저 김부인은 남편이 죽은 지 3개월 3일이 지난 시점에 남편과 같은 시에 세상을 떠났는데, 왜 그날 죽은 것인지 설명했다. 김부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3년 상을 3개월로 대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남편이 죽은 진시(辰時)가 언제인지 물었던 일을 모든 문서에서 다루면서 김부인이 이미 자신이 죽을 날을 정해 놓았다는 증거로 삼았다. <문장>에서는 김부인이 자신이 죽고자 하는 날에 대해 주변사람들에게 질문한 것과 김부인이 실제 죽은 날과 시(時)가 일치하는 것은 김부인이 남편과 같은 때 죽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 서술하기도 한다.¹³⁾ 그리고 <도유장>에서는 김부인이 남편 장례를 지내는 동안 몸을 씻거나 머리카락을 빗지 않다가 자신이 죽던 날 몸을 단정히 하고 자리에 누웠다고 언급하여 스스로 죽음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¹⁴⁾ <도유장>을 작성한 정재규는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열부 김씨 실록>을 써서 문집에 남겼는데,¹⁵⁾ 실록에는 이러한 묘사가 없다. 김부인이 자신의 의지대로 죽음을 준비했던 일들은 실록보다 김씨의 열행을 입증해야 하는 <도유장>에서 더 자세히 서술했다.

또 김부인이 죽을 날을 기다리며 매달 지난 시간을 헤아리고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을 한탄하는 짧은 글을 벽에 써 붙였던 것도, 그리고 유한서와 고결서를 남겨 죽을 뜻을 밝혔던 것도 중요하게 다뤘다. 김부인이 남긴 벽상서와 유한서, 고결서는 그가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 인사를 남기며, 죽기 전까지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진술하는 당사자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김부인의 죽음이 남편을 따라 죽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자신의 죽을 날을 계산하고 자기 심정을 글로 남긴 일화들은 각

13) 『중용록』 <門狀>. “追想當日所道諸說, 則與其所殞皆合符契, 而夫人之寃化, 在今二月初六日辰時, 則踞其夫之夭逝也三月而三日, 若其所問時, 則欲同其夫之殞在辰時故也.”

14) 『중용록』 <道儒狀>. “始死時所披之髮, 至既葬而乃收, 而猶不盥櫛矣, 至此而忽盥櫛.”

15) 鄭載圭, 『老柏軒先生文集』 卷48, <烈婦金氏實錄>.

단위에서 올린 문서에 모두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김부인 사적에 대한 기록이 보다 상세하게 작성된 〈문장〉과 〈도유장〉의 경우, 김부인이 남편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자신의 장신구 등을 상자 속에 함께 갈무리해 둔 일을 덧붙였는데, 이것 역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주변을 정리했다는 증거가 되었다.¹⁶⁾ 특히 〈도유장〉에서는 김부인이 남편과 자신의 물건들을 잘 정리해 둔 것은 뒷날 자신들의 뒤를 이을 후사에게 물려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¹⁷⁾ 이러한 해석이 정재규가 쓴 김부인에 대한 실록에는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정려를 청원하는 글에서 김부인이 자신이 죽은 뒤의 일까지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 김부인의 죽음이 스스로 다짐한 것임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부인이 바로 따라 죽지 않고 뒷일을 정리하고 남편 장례를 치르고는 약식으로나마 복을 입는 의무를 다 한 뒤, 날짜를 헤아려 스스로 삶을 정리하고 마지막 심정을 남겼다는 것을 김부인의 발화, 남긴 글, 행동 등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또 정려를 청원하는 글에서 공들여 서술하는 부분은 김부인의 죽음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사했다는 사실이다. 김부인이 다른 열녀들의 경우처럼 독을 마시거나 칼을 쓰거나 목을 매거나 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스스로 자리에 누워 자는 듯이 죽은 것이 실제 사실이며, 진정한 열행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김부인이 자리에 누운 채 불려도 반응이 없자 가족들이 의원을 불러 진맥하게 했는데, 의원은 가족들 외에 김부인의 특이한 죽음의 의미를 증언할 권위있는 목격자로 활용되었다. 의원은 김부인이 이미 사망했다고 진단하고 그가 병사한 것(혹은 약을 먹고 죽은 것)이 아니며 가슴에 기운이 격양되어 죽음에 이른 것이라 말했다.¹⁸⁾ 정재규는 실록에 비해 〈도유장〉에서 김부인 죽음의 정황을 더 상세히 묘사했다. 김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 시신의 상태에 대한 것인데, 김부인이 약을 마셨나 여겨도 토한 흔적이 없

16) 『중용록』 〈門狀〉. “且夫之所佩小刀若襟容諸物, 與其所着銀指環銀釵一雙, 襲襲同封藏之篋笥.”; 〈道儒狀〉. “又以夫所佩小刀若襟容諸物, 與其所著銀指環銀釵一雙, 襲襲同封藏之.”

17) 『중용록』 〈道儒狀〉. “抑小刀釵環同封襲藏, 又何俟也, 無乃爲異日立後承家者耶.”

18) 『중용록』 〈門狀〉. “使醫來診則曰, 藥餌無所下而脈已絕矣. 醫云, 病無如是, 似有激于中也.”; 〈道儒狀〉. “使醫來診之, 則已無及矣, 非藥非病, 是必氣激于中也.”

고 기이한 증상으로 죽었나 해도 몸을 뒤척이거나 답답해한 자취가 없다는 것이다. <도유장>에서는 김부인이 다른 원인이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남편을 따라 조용히 죽은 것이라는 논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술했다.¹⁹⁾

그리고 김부인의 몸에서 격동한 기운의 증거를 찾아냈다. 김부인의 시신을 염습할 때 보니 그의 모습이 평소와 같았는데, 가슴에 등글게 검은 멍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양반가 여성이 죽었을 때, 임종과 염습을 친정 자매에게 맡기거나²⁰⁾ 사인(死因)이 의심스럽더라도 검시(檢屍)를 거부하기도 할 정도로²¹⁾ 여성의 몸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부덕에 맞는 것이라 여겨졌으나, 이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몸의 흔적을 묘사하며, 김부인 죽음의 이유를 보여주는 물증으로 제시하였다. 각 문서에서는 김부인의 가슴에 남은 검은 멍이 원한이 맺힌 것이며 열(烈)의 기운이 격동하여 호흡을 막아 만들어진 것이라 했다.²²⁾ 시신에 남은 멍 자국은 남편의 죽음을 한스럽게 여기고 열렬한 기운이 숨을 막은, 믿기 힘든 죽음의 증거가 되었다. <문장>과 <도유장>에서는 김부인이 김굉필의 후손으로 소학가법 안에서 성장했다는 것 외에도 그가 시조모의 권유로 <열녀정씨전>을 읽고 그 행실에 감동했던 일화를 통해 평소 열행의 의지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김부인이 열녀의 일에 목이 땀 정도로 감탄하고 혹은 그 열녀전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 베껴두기도 했던 일²³⁾은 그가 평소 어떤 뜻을 품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근거

19) 『중용록』 <道儒狀>. “莫知何由, 以爲仰藥乎, 則了無煩懣嘔噦之氣矣, 以爲乖證乎也, 則亦豈無轉輾悶查之狀乎.”

20) 여성이 세상을 떠날 때 부친 혹은 남편이 곁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녀의 바른 행실로 여겨져서 자매들이 임종하는 것을 부덕에 맞는 처신으로 칭송하였다. 그리고 자매가 장례 물품을 마련하고 몸에 닿는 수의를 지어 넉넉히 몸을 가릴 수 있도록 한 것도 예를 지킨 일이라 기억되었다. 서경희, 「조선 후기 이모에 대한 관계 인식과 감성—남성지식인 기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42~171쪽 참조.

21) 검시(檢屍) 과정에 몸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양반가의 경우 부녀자 시신의 검시를 꺼려서 시친들이 면검(免檢)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호, 『100년 전 살인사건』, 휴머니스트, 2018, 216쪽.

22) 『중용록』 <門狀>. “身斂之時, 顏貌肢體, 宛如平昔, 惟胸膈之間, 一團成暈, 深黑結痕, 信驗其冤恨之鬱結, 貞烈之激成也.”; <洞狀>. “身斂之時, 形貌如常, 惟胸膈之間, 有一團黑暈, 果驗冤恨之鬱結, 而烈氣之閉息也.”; <鄉儒狀>. “爲烈激閉息以下從.”; <道儒狀>. “襲斂之時, 形貌若生, 而胸膈之間, 惟有一團暈黑, 信乎其烈激閉息而然也.”

23) 『중용록』 <門狀>. “大姑以排遣無資也, 常勸看古人諺書, 是夜取烈女鄭氏傳讀之琅然, 每掩卷

가 되었다. 따라서 김부인 사후 그 몸에 남은 흔적은 열행의 증거로 읽혀 평소 은폐되던 여성 개인의 몸은 외부에 전시 가능한 몸이 되었다.²⁴⁾

이에 <문장>과 <동장>을 받은 뒤 군수 김영운(金永雲)이 관찰사 민형식(閔衡植)에게 올린 보고(報告)에서, 예로부터 열녀가 많았지만 원한과 열렬한 기운이 맺히고 격앙되어 죽음에 이른 자는 처음이라고 강조하며 그 증거로 의원의 증언과 가슴에 맺힌 흔적을 언급하였다.²⁵⁾ <향유장>과 <도유장>을 접수한 관찰사의 보고를 받은 장례원이 김부인의 정려를 청하기 위해 입안한 글에서도 김씨가 남편을 따라 죽을 때를 계산하고 격앙되어 죽은 뒤 가슴에 검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기록하고 김씨의 열행은 여러 선비들이 연명한 글에 드러나며, 도신들이 조사하여 검증한 일임을 아뢰었다.²⁶⁾ 증거가 있고 검증은 거친 사안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단위에서 작성한 문서들은 김부인이 자신의 의지로 외력 없이 남편을 따라 죽은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글이다. 이 문서들에서는 남편 사후 김부인의 발화, 행동, 남긴 글과 물건, 시신의 모습 등에서 열행으로 죽음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찾아 의구심을 해소하고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김부인이 남편을 따라 죽은 것이 어떤 점에서 다른 열행에 비해 특별한지 강조했다. 김부인처럼 조용히 죽음에 이른 것은 예로부터 의열을 행한 많은 이들 가운데 일찍이 없던 일이라고 했다. 열의 기운이 격앙되어 죽음에 이르고, 자신이 정한 바대로 자는 듯이 죽으며, 독실하게 자신이 말한 바에 따라 세상을 떠나는 것을 조용히 죽음에 나아가는 것이라 칭송하

哽塞曰, 如此婦人, 何爲而致此乎. 姑諭之曰, 下燭就寢也. 良久而聞, 則有割紙聲, 而燈尙耿耿, 姑強止之曰, 夜分矣, 汝胡不寢. 對曰, 語有所契, 欲瞻而看之.”; <道儒狀>. “祖姑常勸看諺書, 冀其資此而遭懷也. 是日夜取烈女鄭氏傳讀之, 輒掩卷哽塞曰, 此婦人何以致此.”

24)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앵혈 모티브와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여자의 팔에 앵무새의 피로 문신한 것을 앵혈이라 하는데 남편이 잠자리를 하면 없어진다고 믿었다. 소설에서 남성의 경우 앵혈이 남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놀림감이 되었지만, 여성은 혼인 전, 혹은 남편과 첫 잠자리를 하기 전까지 자신의 순결을 증명하기 위해 표식을 남겨두어야 했다. 김부인 가슴의 흔적처럼 이 표식은 여성의 은밀한 사적 영역이 필요에 따라 외부로 전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25) 『종용록』 <陝川郡守署理 三嘉郡守 金永雲 報告>. “古來貞烈, 不止乎此, 而第其冤恨貞烈之鬱激致死, 今始初見, 醫士論證, 既有可據, 胸膈結痕, 尤著實地.”

26) 『종용록』 <掌禮院 立案>. “金氏之烈行, 既著多士之聯籲, 尤驗道臣之採摭.”

고 하기 어려운 일임을 강조했다.²⁷⁾ 열녀의 사적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거나 허위로 만들어지고 정려가 남발되어 그 포상의 의미가 변질되는 시기에 김부인의 정려를 청원하는 문서들에서는 믿기 어려운 김부인의 죽음을 사실로 확정한 뒤, 그 죽음을 열행으로 해석하고 그 열행을 차별화했다. 이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죽음에 대해 포상해야 한다는 설득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김부인 사후 정려를 받기 위한 문서 작성은 김부인의 포상 자격에 대한 증명과 해석, 그리고 차별화를 위한 활동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들을 절차에 따라 묶은 『증용록』 권2의 내용은 그 포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써 결과적으로 김부인의 행적과 그에게 내린 정려에 권위를 부여하게 된다.

4. 죽음의 해석 정치

19세기 중엽 강우지역에서 많은 유학자가 배출되었고 1870년대 이후 허유, 곽종석, 장석영 등 한주학파가 강우학파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정재규 등 여러 학파의 학자들이 교유와 토론을 통해 학문적 사상적 진전을 이루었다.²⁸⁾ 청송 심씨가 자제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대의 학자들에게 나아가 배우고 교분을 쌓았다. 이 책의 편찬자 심학환 역시 당대의 학자들과 서간을 통해 철학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²⁹⁾ 후기에서도 밝혔듯이 허유의

27) 『증용록』 〈門狀〉. “嗚呼, 古今歸來殞身蹈烈者, 指不勝屈, 而舉是慷慨致命, 未有若是之從容就死, 純乎烈激者也.”; 〈洞狀〉. “何其踐言之若是其笨篤, 蹈死之若是其從容也.”; 〈鄉儒狀〉. “嗚呼, 宇宙歸來身蹈義烈者, 固何限, 而未有若是之從容自處, 踐言之笨篤也.”; 〈道儒狀〉. “嗚呼烈哉, 死固難矣, 而處死之從容爲尤難, 若金夫人者, 可謂難乎難者也. (…중략…) 亶乃遐邇以烈褒旌綽楔相望, 而若其謹於禮而不徑情, 安於命而無怨, 尤處義之從容而不迫者, 金夫人一人而已.”

28) 정재규는 이이의 이기론을 주리론적 입장에서 재해석한 기정진의 제자로 한주학파의 이진상, 곽종석 등과 토론하면서 많은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 김낙진, 「노백헌 정재규의 주리적 심학의 형성 과정－한주학단과의 교유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68, 한국철학사연구회, 2021, 33~65쪽; 권오영, 「19세기 강우학자들의 학문동향」, 『남명학연구』 11,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1, 147~182쪽.

29) 심학환의 문집에 허유, 곽종석, 김진호, 장석영, 이승희, 김도화 등에게 올린 서간이 남아 있다. 沈鶴煥, 『蕉山集』 卷2.

문집을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그런 까닭에 김부인에게 정려의 명이 내려진 뒤, 학맥으로 이어진 여러 인사들, 곽중석, 허유, 장석영, 하용제, 이승희 등과 김부인의 부친, 친족들에게 찬술문을 청하고 그 글들을 『종용록』 권3으로 묶었다.

권3의 찬술문 가운데 김부인의 부친 김희연의 제문은 죽음을 해석하는 정서가 다른 글들과 다르다. 김부인은 한주학파의 종장인 이진상, 그리고 그 아들이자 한주학파의 계승자 이승희와 인척 관계다. 이진상의 둘째 누이는 김부인의 증조부인 김규정(金奎精)의 아내다. 김규정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김희연 형제들은 조모의 아우인 이진상과 돈독하게 지냈다고 했다.³⁰⁾ 따라서 김희연은 김부인 부친의 자격이자 한주학파 인사들과의 인맥 관계에 놓인 인물로서 제묘문을 썼다. 김희연의 글은 제묘문의 성격상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감정이 넉넉히 표현되기도 하지만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개인적 경험 안에서 딸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정서가 묻어나고 있다. 김희연은 아내가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이 의리에 바른 일이지만 자식이 죽어 아버지가 곡을 하는 것은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라 하면서 딸의 죽음을 의리에 맞는 일로만 볼 수 없는 자신의 입장과 감정을 드러냈다. 그리고 딸의 죽음이 평범하지 않아서 열녀의 행적이 있다고들 말하고 조정에서 정려를 내렸으나 아버지로서 듣고 보기 힘든 일이고 딸이 바라던 바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딸의 사후 평가나 포상의 움직임으로부터 거리를 두었다.³¹⁾ 김희연은 어진 사위를 골라 딸을 혼인시키며 다복하게 살기를 바랐으나 뜻하지 않게 사위를 여의고 딸과도 사별한 아버지로서 겪는 슬픔이 무엇인지 서술했다.

그러나 권3에 실린 대부분의 찬술문은 김부인에 대한 개인적 기억보다는 그 죽음이 열행에 닿아있다는 것을 조명하고 기리는 데 초점을 두었다. 청송 심씨 집안에서 김부인의 죽음에 대한 나라의 포상을 청원하면서 그의 죽음

30) 김부인의 큰아버지 김희주(金熙澣)가 쓴 이진상의 제문에서 이러한 관계를 알 수 있다. 金熙澣, 『寒洲先生文集』 附錄 卷5, 〈祭文〉.

31) 『종용록』 〈祭墓文〉. “嗚呼, 夫死婦從, 是義之正, 子亡父哭, 奈理之橫, 我懷如山, 我心匪石, 欲言淚先, 可堪標擗. (…중략…) 汝死非常, 云有烈蹟, 人不忍聞, 我豈得詳, 邦人齊誦, 天褒乃降, 道川之上, 彼何丹屋, 非汝所心, 非我可目.”

을 특별한 열행으로 해석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원글에서는 김부인이 자신의 의지로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난 것이라는 증거를 들어 포상의 필요를 설득하고, 김부인의 열행이 알려지면 풍속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포상의 효과를 강조했다. 김부인의 사망을 개인적 경험 속에서 상실감이나 슬픔, 애도 등으로 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범이 되는 관념적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종용록』에 실린 찬술문의 저자들도 이러한 시각으로 김부인의 죽음을 평가했다. 김부인의 사망은 소학에 정통한 한훤당의 후손이며 병자호란 때 순절한 심자광 집안의 일원이기에 가능한 열행으로 맥락화했다. 그리고 풍교를 세우는 데 보탬이 된다는 점을 주목했다.³²⁾ 친족인 송호언이 쓴 전에서도 풍속이 나빠지고 삼강과 구범이 사라져 오랑캐가 횡횡하는 가운데 김부인의 정려가 빛나고 아름다우니 김부인은 소학에 정통한 한훤당에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라 추앙했다. 이 글에서도 김부인의 죽음은 풍속과 교화가 땅에 떨어진 시기에 소학 가법의 명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³³⁾ 무도한 시대에 전통있는 집안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풍속을 일으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 보았다.

더 나아가 신하로서, 자식으로서, 아내로서 섬기는 데 마음을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 경계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³⁴⁾ 송호곤도 이 책의 후기에 임금과 부모를 배반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넘쳐나는 때 김부인이 한낱 여자의 몸으로 남편을 따르는 의리를 알아 수많은 장부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을 열렬하다 기리고 짐승같은 이들이 열부, 즉 김부인의 말을 듣고 김부인의 행실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했다.³⁵⁾ 조상의 명맥을 이어 풍교를 돕는 행실일 뿐

32) 『종용록』〈書烈婦金氏遺恨書後〉, “寒暄家法, 又在是矣. 許愈.”; 〈書烈婦金氏事實錄後〉, “竊聞沈氏之先有松湖先生自光, 當仁祖丙子亂買賊殉節於南漢, 顧今三綱頽, 人道幾熄, 而沈之世能死於君綱, 死於夫綱, 是可以樹風聲, 而勸世教矣.”

33) 『종용록』〈烈婦金氏傳〉, “野史氏曰, 余嘗過江州之小學堂, 歎人亡教弛, 風俗陵夷, 卒三淪九敗, 蹄跡交域中矣. 因彷徨躑躅, 溯風而唉矣. 南出孔道, 有新圖粉壁, 煥然芳菲, 問之乃烈女金氏之閭也. 敬而式之曰, 嗚呼, 夫人真不愧爲小學先生之孫也.”

34) 『종용록』〈書金夫人殉節錄後〉, “今天下無道, 三綱絕而人類化而爲禽獸矣, 以夫人之死, 而天下之爲人臣爲人子爲人婦, 而不盡心於所事者, 知所懼.”

35) 『종용록』〈書烈婦金氏從容錄後〉, “噫, 今天下倫綱數滅, 背君親倫生活者, 滔滔皆是, 人不人

아니라, 윤리 도덕이 사라진 시기에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는 이들에게 경계가 된다는 점을 높이 샀다. 정려기를 쓴 곽종석도 김부인 죽음의 의미를 타인에 대한 권면에 두었다. 김부인의 열행은 만 명의 장부가 충과 효를 다하도록 권면하며, 그 열행을 기리는 정려는 어려운 때 나라의 맥을 진흥하게 할 것이라 평했다.³⁶⁾

이처럼 김부인 개인의 죽음은 가법을 잇는 표징에서 윤리적 본보기로, 또 국가의 맥을 다시 일으킬 조짐으로 평가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적이 많아진 때에 김부인의 일은 백세에 전할 역사이자³⁷⁾ 〈소학〉 선행 편에 들어갈 만한 일로 추앙되어³⁸⁾ 사서와 경전에 오를 보편적 전범이 되었다. 이처럼 김부인의 행적은 찬술로 기리고 정려로 포상되어 후세에 길이 전해지는 일이 되고 그 열절이 사라지지 않고 그 마음이 죽지 않아 만세에 귀감이 될 것이라 칭송받으면서³⁹⁾ 김부인은 죽었지만 죽지 않은 역설적인 존재가 되었다.⁴⁰⁾ 앞서 〈제묘문〉에서 김부인의 부친은 딸의 열행을 기리고 정려를 내린 것은 자신에겐 견디기 힘든 일이고 딸도 마음에 둔 바가 아니라고 했지만, 정면규는 〈서열부서흥김씨종용록후〉에서 김부인이 죽은 뒤에 받는 보답이라 평했다. 김부인 개인의 바람이 무엇이었는가와 상관없이, 김부인 죽음에 대한 기존 사회의 호의적 평가는 당사자에게 죽음을 보상할 만한 가

矣. 國不國矣. 金氏以一婦人, 能知從夫之爲義, 辦得來萬丈夫所未能之事, 何其烈哉. 縱彼冥頑無恥爲犬爲羊者, 聞烈婦之言, 觀烈婦之行, 寧不愧乎.”

36) 『종용록』 〈烈婦金氏旋閭記〉. “聖朝彝倫爲治, 綱常以勵世, 一婦之烈而足以勸萬丈夫之爲人子爲人臣, 而竭力致身於其君親者矣. 今天下誠何時哉. 余竊以爲伊溪之濱, 有綽其楔, 而人紀之植立, 國脉之振興, 未必不由此而爲之兆也.”

37) 『종용록』 〈書烈婦瑞興金氏從容錄後〉. “後世文僞日滋上至, 三綱之典, 或致虛實相混, 世之有真正節行者差與爲列此, 則史之弊也. 故曰, 史失則求諸野. 又曰, 天下無道, 公論在乎下. (…중략…) 若烈婦瑞興金氏從容之錄, 不待天褒之降, 而當日林下之筆已備, 百世信史, 此在烈婦正身後之報也.”

38) 『종용록』 〈書烈婦金氏從容錄後〉. “真可謂小學家模範, 宜其收錄於善行編中, 以補既頽之風綱, 而恨無紫陽夫子筆法也. 宋鎬坤.”; 〈題從容錄後〉. “寒暄型範在孺人, 處義從容何等人, 小學編中難採入, 晦翁千載更無人.”

39) 『종용록』 〈書烈婦金氏事實錄後〉. “朝家之旌褒, 儒林之讚述, 固足以百世矣.”; 〈謹書從容錄後〉. “婦人烈烈之氣, 卓卓之節, 炳朗乎如烈日秋霜, 將與穹壤不廢焉.”; 〈讀從容錄有感〉. “匹婦能扶世道顛, 恩綸有隕聽卑天, 一片貞心終不死, 嗚呼柯則萬千年.”

40) 『종용록』 〈書金氏殉節錄後〉. “特命褒閭里, 以傳千古, 於是金氏又不死也.”

치있는 일이라 단정했다.

여성의 열행은 전통적으로 풍교의 지속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었다. 이 찬술문들에서 김부인의 죽음을 가법이나 풍속의 교화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은 열녀에 대한 관행적 수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찬술자들은 20세기 초 외세의 침략과 전통적 도덕규범의 붕괴, 윤리적 풍속으로부터의 이반을 위기로 여기면서 김부인 죽음의 의미를 더욱 적극적으로 포획해 나갔다. 『종용록』의 서문을 쓴 김도화는 국권을 빼앗긴 뒤에도 구주(舊主)의 봉환과 구속(舊俗)의 보존이 자신의 바람이라 할 만큼 위정척사의 입장을 고수하였고 정재규 역시 평생 외세에 대한 저항과 의리로 일관하면서 구제도의 회복을 추구하였다. 이 책에 찬술문을 쓴 인사들의 학문적 배경이 된 한주학과 역시 비교적 신학에 대해 수용적 입장을 취했으나 당시 척사의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유교를 더욱 철저히 이념화하고 유교 사회를 조직화하여 근대에 적응하고자 했다.⁴¹⁾ 이처럼 19세기 말, 20세기 초 강우의 유학자들은 시대가 봉착한 문제를 타개하는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있을지언정, 이 절박한 시기에 유교적 가치와 제도의 재건이라는 지향은 같았다. 그리고 충효뿐 아니라 열녀를 기리는 저술 활동은 전통 사회의 이념을 회복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었다.⁴²⁾ 따라서 외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김부인의 죽음을 ‘열행’으로 규정한 공적 포상은 찬술자들에게 유의미한 사건이 되었다. 김씨의 죽음을 열행으로 의미화하고 추앙함으로써 효와 열, 충이 여전히 최상의 가치임을 드러내고 이러한 가치를 위한 극단적 실천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김부인의 열행을 경계와 교화의 매개로, 더 나아가 나라를 다시 일으킬 조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찬술문을 통한 현실 대응이었다. 김부인이 생을 마감한 일은 개인의 구체적인 삶과 괴리되어 유교적 가치로 환산되었다. 김부인의 죽음을 집안의 유풍, 지역의 풍속을 가늠하는 지표로, 구법과 구습이 존속한다는 증거이자 나라가

41) 김종석, 「한말 영남 유학계의 동향과 지역별 특징」, 『국학연구』 4, 한국국학진흥원, 2004, 31~84쪽 참조.

42) 강성숙, 「19세기 효열 담론의 일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55~95쪽.

흥기할 징후로 해석하며 전통 윤리를 바탕으로 한 조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이승희는 묘지명에서 김부인이 죽음에 이른 과정을 이념적으로 해부하였다.

아아, 이제 천하의 강상이 거의 쓸어버리듯 사라지고 충신과 효자가 없는데, 열렬하도다. 이 부인은 죽히 세상의 신하와 자식된 자에 앞서니 성인의 풍속을 세울 전범이 또한 갖추어졌도다.

또 일설에 의하면, 남편이 죽자 열녀도 죽을 마음을 먹었는데, 이미 마음을 먹고도 기운이 끊어지지 않아서 죽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죽는 자가 겉으로 칼을 쓰거나 줄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 안으로 독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열부는 어찌 죽었는가? 아, 이 기를 명하는 것은 리인데, 리가 일관되면 기가 어길 수 없다. 그 천지의 기에 속박된 자라도 열기를 서리로 만들 수 있고 습한 것을 가물게도 할 수 있으니 하물며 몸뚱이 하나랴? 저 칼과 독을 쓰는 것은 오히려 기에서 작용한 것이다. 오직 열부는 리에 한결같이 여기에 이치가 다하고 기가 명을 들어서 죽고자 하여 죽었을 뿐이다. 군자가 심학(心學)에 뜻을 둔 것 또한 여기서 증거를 볼 수 있다.⁴³⁾

이승희 역시 김부인의 행적이 전통적 윤리의 실천이 끊어진 때 옛 성인의 교화를 다시 세울 전범이 된다는 것을 먼저 확인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학파적 이해를 증명하는 사례로 김부인의 죽음을 호명했다. 김부인이 칼이나 줄, 독을 쓰지 않고 죽음에 이른 이유를 이기론으로 설명했다. 남편이 죽은 뒤 따라 죽고자 해도 죽지 않으면 외물을 이용하여 목숨을 끊게 되는데, 김부인이 외물의 도움 없이 죽음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리(理)가 한결같이 기(氣)가 리의 명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했다.

43) 『증용록』〈烈婦金氏墓碣銘 并序〉. “嗚乎, 今天下綱常殆掃地, 忠臣孝子寥寥焉, 烈哉是婦, 足以爲天下臣子先, 聖人樹風之典亦備矣. 抑又有一說焉, 夫當死而判其死心也, 既判矣其氣不絕則不死, 故致命者或刀之繩之于外, 或毒之內, 今烈婦何以死. 噫命此氣者理也, 理一則氣不能違. 其薄于天地之氣者, 熱可使霜, 濕可使旱, 況於一身乎. 彼刀者毒者尙有事乎氣焉, 惟烈婦一於理. 理窮於此, 而氣聽焉, 欲死而死已. 君子留心之學, 亦可徵於此夫.”

이승희는 이진상의 아들이자 그의 학문을 계승한 한주학파의 중심 인물이다. 이진상은 리(理)와 심(心)을 주재성(主宰性)의 차원에서 일치시켜 심즉리설(心卽理說)을 주장하였다. 그는 주기적 학풍으로 인해 혼란이 심해지고 도덕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순선(純善)의 리를 강조하며 주리론으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고 한주학파는 리(理)라는 원칙에 의한 공도(公道)를 주체적으로 드러내 인간의 사사로운 욕구나 생각을 주재·극복·배제하여 참된 주체성 확립과 도덕 사회의 완성을 추구하고 국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 노력하였다.⁴⁴⁾ 이승희는 이러한 학통을 이었다. 특히 중세 체제의 위기에 맞서 사족층을 중심으로 향촌 내의 신분 질서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봉건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⁴⁵⁾

이승희는 김부인의 죽음이 리의 주재를 증험한다고 보았다. 김부인이 남편을 따라 죽고자 하는 마음[心]이 한결같아 몸을 주재하여 그 뜻대로 죽음에 이른 것, 즉 기가 마음의 명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김부인의 죽음은 리의 주재로 열이라는 윤리적 실천이 저절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이러한 도덕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김부인 죽음이 마음의 윤리적 주재성이 고양되어 자연스럽게 발현된 결과라면, 심즉리(心卽理)의 실천성이 확인되고, 유교적 도덕 질서와 이념을 원리 삼아 당시 가치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고 전통적 위계와 풍속을 되돌릴 가능성이 입증되는 것이었다.

결국 이승희의 묘지명을 통해 김부인은 자신의 바람과 상관없이 심즉리의 학설을 몸으로 증명한 인물이 되었고, 나라가 열행으로 인정한 그의 죽음은 이념이 작동하는 현장이 되었다. 이처럼 사망 원인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김부인의 죽음은 한주학파 이론의 타당성과 실천성, 그리고 시대적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해석의 기저에는 가치 질서가 무너지는 시기에 원칙을 지키고 중시한다면 사라져가는 것을 복원하고 불가능해

44) 이형성, 「한주학파 성리학의 지역적 전개양상과 사상적 특성」, 『국학연구』 15, 한국국학진흥원, 2009, 91~155쪽; 권오영, 앞의 논문, 147~182쪽.

45) 김도형, 「한주학파의 형성과 현실인식」, 『대동문화연구』 3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355~387쪽.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놓여있다.⁴⁶⁾

이처럼 찬술문에서는 대대로 이어온 명가의 유품을 담지하고, 현실적 위기에 굳건히 맞설 도덕성의 우위를 드러내며, 리에 바탕을 둔 윤리적 질서와 위계가 자연스럽게 발현된 일로 김부인의 죽음을 의미화했다. 일생 집의 담을 넘는 것을 경계했던 여성은 당사자의 현실적 삶이 존재하지 않았던 공간의 필요에 의해 죽음 이후 담 밖으로 소환되었다. 그리고 강우지역 어느 부인의 죽음은 집안과 시대, 학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그 의미가 재생산되었다. 김부인은 불행한 시대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 열행이 길이 남을 여성,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은 존재로 규정되고 박제되었다.

5. 결론

『종용록』은 심재덕과 혼인한 김부인이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나자 시당숙인 심학환이 그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을 모아 만든 책이다. 김부인 자신과 친정 부친이 쓴 글도 실려있으나 책의 서문이나 2장의 공문, 3장의 찬술문들은 대체로 김부인 시가 인사들과 그 주변 문인들이 썼다. 김부인이 세상을 떠난 해 관에 청원하여 정려를 받기까지 작성한 문서와 정려의 명이 내린 뒤 김부인의 행적을 기리는 글, 그리고 이 책의 의의를 강조하는 서문과 후기들이다. 대부분 김부인 사적을 외부의 시선에서 다룬 글들이다.

실제 김부인은 혼인 후 남편과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6년간 병수발을 들다가 사별하게 되자, 그로부터 3개월 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사망하였다. 정재규가 『종용록』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문인들의 글에서는 김부인의 죽음이 ‘열행’에 해당하며 그 가운데서도 ‘조용히’ 의리를 다한 유일

46) 이승희가 쓴 <염열부전(廉烈婦傳)>(『大溪集』 卷36)에서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열행을 이기론으로 해석한다. <염열부전>은 다른 남자와 통정했다는 오명을 쓴 염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그 혼령이 초현실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복수하고 신원하는 내용이다. 염씨의 일은 여러 기록으로 전하는데, 이승희의 전에서 신이한 현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 기이한 현상은 기의 작용으로, 마음이 정한 바대로 따른 것이라 해석했다. 열렬한 마음이 향하는 대로 기운이 내달려 복수와 응징을 이룬 것이니 괴이할 것이 없다고 보았다. 리(理), 즉 심(心)이 정해지면, 믿기 힘든 일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 사례라고 했다. 열녀의 사적이 신비화되고⁴⁷⁾ 실제와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때, 믿기 어려운 김부인의 일이 공식적이고 신뢰할 만하며 매우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김부인의 사망은 사회적 의미를 담지한, 그리고 이념의 현실 작동을 증거한 죽음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증명과 해석 과정에서 김부인의 말과 행동, 몸의 증거를 낱낱이 묘사하여 사라져간다고 여겼던 열행이 여전히 실재한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했지만, 그 죽음의 의미는 김부인 개인의 구체적인 삶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김부인은 사망한 뒤 나라의 인정과 당대 저명한 문인들의 찬술을 받고 그 죽음이 경전이나 사서에 오를 만한 일로 평가되어 죽은 뒤에 영원한 존재로 거듭났다. 『중용록』 권2, 권3에 실린 글에서는 이러한 포상과 평가가 김부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받은 ‘보상’이라 했다. 전통 윤리와 이념을 올곧게 실천한 자에게 마땅히 보상이 돌아간다는 전개는 김부인의 일이 경계와 교화를 위한 전범이 되기 위해 필요한 논리이다.

그러나 김부인의 부친 김희연의 언급처럼 실제로 보상을 요구한 주체가 김부인이 아니며 그 수혜를 입은 당사자도 김부인이 아니다. 오히려 김부인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일상과 시신이 공개적으로 부검당하고 죽음의 과정이 해부되었다. 개화기 여성들의 구체적인 몸은 강고하게 단속되었지만,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여성의 관념적 몸은 외부에 진열되었다.

김부인에 대한 정려 추진과 찬술 활동은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김부인의 시가에서 정려 청원을 추진하여 가문의 도덕적 위상과 명맥을 증명하고, 시당숙 심학환이 『중용록』을 편찬하기 위해 여러 인사들에게 글을 청탁하여 찬술자들의 사회적 역할과 학문적 이해를 도모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학맥으로 연결된 인사들이 김부인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의미 규명과 해석을 더하면서 현실 대응 의지를 응집력 있게 드러낼 수 있었다. 그 결과 김부인의 삶에 대한 해부와 편집, 죽음에 대한 증명과 기림을 통해 믿기 어려운 일을 사실로,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중용록』에서 추구한 보수적 이념의 복원이 그만큼 기대하기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7) 김경미, 「개화기 열녀전 연구」, 『국어국문학』 132, 국어국문학회, 2002, 196~199쪽.

참고문헌

1. 사료

- 金熙漣, 『寒洲先生文集』附錄 卷5, 〈祭文〉.
『승정원일기』 고종 43년 3월 24일.
심학환 편, 『증용록』 3권 1책, 요산정사, 1909.
沈鶴煥, 『蕉山集』 卷2, 書.
柳麟錫, 『穀菴集』 卷50, 〈烈婦孺人李氏傳〉.
李承熙, 『大溪集』 卷36, 〈廉烈婦傳〉.
鄭載圭, 『老柏軒先生文集』 卷48, 〈烈婦金氏實錄〉.

2. 논저

- 강성숙, 「19세기 효열 담론의 일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강재철, 「김부인유서에 대하여」, 『한국학보』 43, 일지사, 1986.
권오영, 「19세기 강우학자들의 학문동향」, 『남명학연구』 11,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1.
김경미, 「개화기 열녀전 연구」, 『국어국문학』 132, 국어국문학회, 2002.
김경숙,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聯名呈訴활동과 公論형성-安東 周村 眞城李氏家 사례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109, 한국사학회, 2013.
김낙진, 「노백헌 정재규의 주리적 심학의 형성 과정 - 한주학단과의 교유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68, 한국철학사연구회, 2021.
김도형, 「한주학파의 형성과 현실인식」, 『대동문화연구』 3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김종석, 「한말 영남 유학계의 동향과 지역별 특징」, 『국학연구』 4, 한국국학진흥원, 2004.
김 혁, 「19세기 김채상 집안의 효자정려 취득과정」, 『장서각』 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김 호, 『100년 전 살인사건』, 휴머니스트, 2018.
박 주, 「19세기 후반기의 旌表政策」, 『연구논문집』 52,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1996.

- _____, 『조선시대 읍지와 유교문화』, 국학자료원, 2016.
- 서경희, 「조선 후기 이모에 대한 관계 인식과 감성—남성지식인 기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 이형성, 「한주학과 성리학의 지역적 전개양상과 사상적 특성」, 『국학연구』 15, 한국국학진흥원, 2009.
- 이희환, 「조선 말기의 정려(旌閭)와 가문 승상의 풍조」, 『朝鮮時代史學報』 17, 조선시대사학회, 2001.
- 황재문, 「『종용록』에 나타난 열녀 인식」, 『규장각』 22, 규장각한국학연구소, 1999.

〈Abstract〉

**Jeongryeo[정려(旌閭)] Propulsion and Interpretation of
Death for Mrs. Kim whose Family Clan is Seoheung
- Focusing on *JongYong-rok* -**

Seo, Kyung-Hee

This study examined aspects of interpretation of Mrs. Kim's death, focusing on *JongYong-rok*. In the writings of writers included in this book, Mrs. Kim was defined as a virtuous woman who died quietly and faithfully. And in these records, writers focused on revealing that the incredible work of Mrs. Kim was official, trustworthy, and very special. Mrs. Kim's death was interpreted as a death that had social meaning and evidenced the workings of ideology in reality. In this process of proof and interpretation, Mrs. Kim's words, actions, and body evidence were described in detail, showing that the virtuous woman's actions still exist. However, the meaning of her death was divorced from Mrs. Kim's actual life.

After Mrs. Kim's death, she received recognition from the country and praise from famous writers of the time, and her death was evaluated as worthy of being included in the scriptures and historical books, and she was reborn as an eternal being. Although it was said that Mrs. Kim received 'compensation' after her death through these rewards and evaluations, Mrs. Kim was neither the one who actually requested compensation nor the party who benefited from it. Mrs. Kim's daily life and body were publicly autopsied and the process of death was dissected due to social necessity, regardless of her will.

The benefits were received by those who led and participated in the awards and compliments. Mrs. Kim's in-laws proved the family's moral status and reputation, and the writers who wrote tributes fulfilled their social role and demonstrated the operation of ideology by evaluating Mrs. Kim's death.

* Key Words: *JongYong-rok*, Mrs. Kim whose Family Clan is Seoheung, Interpretation, a Virtuous Woman, Confucian Ethics

· 논문투고일: 2023년 10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12일 · 게재결정일: 2023년 11월 24일
--